

# 『合部金光明經』 간행과 『高麗大藏經』 각성사업

崔然柱\*

## 목 차

- I. 머리말
- II. 『合部金光明經』과 『高麗大藏經』 각성인
- III. 『合部金光明經』 간행과 대몽항쟁
- IV. 맺음말

### 〈 요약 〉

이 연구는 강화경관 『高麗大藏經』에 入藏된 『合部金光明經』과 13세기 중엽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口訣本 『合部金光明經』의 구성에 참여한 刻成人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국가적·범종파적 사업으로 전개된 각성사업에 『합부금광명경』이 조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결본 『합부금광명경』 조성에 참여한 이들은 각성사업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이에 『고려대장경』에 입장된 『합부금광명경』과 구결본 『합부금광명경』을 상호 비교해 본 결과 경전의 내용과 板式, 그 구성 체계가 相異한 분이었다. 그리고 彫成에 참여한 각성인을 조사해 본 결과 『고려대장경』에는 '부령' 이었고, 구결본은 '存植', '立成', '正安', '孝兼' 등이었다. '存植', '正安', '孝兼'은 고종 24년부터 16년간 전개된 각성사업에 참여한 각성인들과 동일 인물이었다. 특히 '孝兼'은 자신을 비구라고 밝힌 점으로 볼 때 당시 활동하던 刻字僧으로 파악된다. '存植'과 '正安'은 고종 33년에 간행된 『禪門三家拈頌集』과 13세기 중엽에 간행된 『圓覺類解』, 『弘贊法華傳』의 구성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문刻手로 보여진다. 그래서 각성사업에 참여한 각성인들은 각자의 여건에 따라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合部金光明經』은 『妙法蓮華經』·『仁王經』과 함께 호국삼부경 중의 하나로서 고려시기에 수시로 간행되고 있었다. 『금광명경』은 국가를 보호하고 내우외환을 소멸시키기 위해 왕실을 비롯한 관료층들이 깊이 존신하고 권장하려 하였던 불교 경전이였다. 특히 대외관계상의 위기상황에는 『금광명경』을 바탕으로 하는 功德天道場이라는 호국적 성격의 법회를 개최되고 있었다. 따라서 『합부금광명경』의 간행 배경에는 『고려대장경』이 국왕을 정점으로 반외세력인 몽고군을 격퇴시키고, 또 최씨무인정권으로부터 왕권을 회복시키고자 시대적 분위기가 적극 반영되어 있다. 구결본 『합부금광명경』의 간행은 민족적·국가적 사업이었던 각성사업에 적극 동참하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고려 불교의 창조적 발전은 물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호국의식을 바탕으로 두고 있었다.

[주제어] 『高麗大藏經』, 『合部金光明經』, 刻成人, 최씨무인정권, 護國經

\* 동의대 강사

(접수일: 2005.10.16, 심사일: 2005.11.28, 심사완료일: 2005.12.5)

## I. 머리말

해인사에 봉안된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이하 『고려대장경』으로 약칭함)은 13세기 대몽항쟁 중 국왕을 비롯한 왕실, 최씨무인정권, 권력층, 일반 민에 이르기까지 전계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문화유산이다. 또 조성과정에서 당시 동아시아에 산재해 있던 각종 대장경을 철저히 교열 및 수용하여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유일의 표준대장경이다<sup>1)</sup>.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 문화유산으로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고려대장경』은 고려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불교 경전을 경판에 새기는 것은 그 업무의 특성상 일정한 기술 및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각성사업이 전개되는 시기에 간행된 13세기 중엽의 각종 불교 경전의 참여 각수와 상관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소위 ‘海印寺藏本’으로 분류된 일부 경전의 지·발문에 나타난 인·법명을 통해 승려층의 참여 사실이 밝혀졌다. 예컨대 고종 원년에 간행된 『金剛般若波羅密經』의 말미에 ‘符仁寺大師 淸守 孝如刻’과 고종 23년에 海印寺에서 간행된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의 각수 ‘大升’과 또 下鋸寺에서 간행된 『大方廣佛華嚴經』의 ‘天章’의 참여가 대표적인 경우이다<sup>2)</sup>.

『고려대장경』은 기왕의 불교 경전 간행에 참여한 전문 각수내지 각자승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彫成되었을 것이다.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의 소개와 검토가 있었으나<sup>3)</sup>, 『고려대장경』 각성사업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13세기 중엽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결본 『合部金光明經』卷3<sup>4)</sup>(이하 구결본으로 약칭함)을 통해 『고려대장경』 각성사업의 운영형태와 각성인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구결본은 이미 原文書誌學的 검토를 통해 각성사업과 동일시기에 간행된 것으

1) 강화경판 『고려대장경』의 조성 배경과 참여세력 및 사업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조하라.

김윤근, 2002,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불교시대사.

최연주, 2004, 『『高麗大藏經』의 彫成과 刻成人 研究』, 동의대 박사학위논문.

최영호, 1996, 『江華京板『高麗大藏經』刻成事業의 研究』,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 김윤근, 1997, 「고려대장경의 東亞大本과 彫成主體에 대한 考察」 『석당논총』 24, 동아대.

최영호, 1997, 「海印寺 所藏本 『大方廣佛華嚴經疏』·『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의 판각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4.

3) 고익진, 1987, 『韓國撰述佛書의 研究』, 민족사.

채상식, 1991, 『高麗後期佛敎史研究』, 일조각.

남권희, 1997, 「13세기 天台宗 관련 高麗佛經 3種의 書誌的 考察-『圓覺類解』, 『弘贊法華傳』, 『法華文句并記節要』 『季刊書誌學報』 19.

천혜봉, 2000, 「高麗 典籍의 集散에 관한 研究」 『고려시대연구』 I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 『合部金光明經』卷3은 구결학회에서 유통된 복사본을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최중호박사로부터 입수하여 저본으로 삼았다.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로 파악되었고, 아울러 『고려대장경』과는 書體, 梵語의 표기 등 차이가 있어 분명 계열을 달리 하는 판종으로 밝혀졌다<sup>5)</sup>. 그리고 경전에 표기된 口訣은 13세기 국어 음운체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sup>6)</sup> 있다. 이처럼 서지학과 국어사에서 중요한 자료 평가되고 있는 구결본 간행의 참여 각수로 추정되는 인·법명이 다수 새겨져 있다. 그 중에 상당수는 각성사업에 참여한 각성인과 동일인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지를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고려대장경』에 入藏된 『합부금광명경』卷3(이하 『합부금광명경』으로 약칭함)과 구결본 『합부금광명경』卷3을 비교해 보고, 두 본의 彫成에 참여한 각성인의 각성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참여 각성인의 『고려대장경』 활동추이를 분석해 본다면 각성사업에 당시 사원에서 활동하는 전문 각수 및 각자승의 참여 사실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다음 『금광명경』이 가지고 있는 경전의 성격과 그 위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대몽항쟁기에 간행된 배경과 당시 조성참여세력들의 현실인식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 II. 『合部金光明經』과 『高麗大藏經』 각성인

『金光明經』은 義淨의 『金光明最勝王經』 10권, 寶貴 편집의 『合部金光明經』 8권, 그리고 曇無讖의 『金光明經』 4권, 眞諦의 『金光明經』 7권 및 耶舍崛多의 『金光明更廣大辯才陀羅尼經』 5권 등 총 5종<sup>7)</sup>이 있다. 이 중에서 당나라의 義淨이 번역한 『金光明最勝王經』을 新譯이라 부르며, 曇無讖이 번역한 『金光明經』을 舊譯이라 부르고 있다<sup>8)</sup>. 『合部金光明經』은 曇無讖의 『金光明經』과 眞諦의 『金光明經』 7권 및 耶舍崛多의 『金光明更廣大辯才陀羅尼經』 5권을 묶은 것으로 義淨이 번역한 經보다는 그 분량이 약간 적으며, 曇無讖이 번역한 經의 반 정도 되는 분량이다<sup>9)</sup>.

앞서 언급한 『金光明經』 중에서 『金光明最勝王經』은 K-127로서 食函에, 『合部金光明經』은 K-128로서 場函에, 『金光明經』은 K-1465로서 精函에 각각 入藏되어 있다. 그렇지만 曇無讖本 『金光明經』 4권은 신라 이래로 유통되었으나, 符仁寺藏 大藏經 소위 『初雕大藏經』에는 入藏되지 않았고, 『고려대장경』에만 추가·편입되었다<sup>10)</sup>. 따라서 『고려대장경』에는 『금광명경』이 모두

5) 남권희, 1998, 「고려 구결본 《(合部)金光明經》권3에 관한 서지적 고찰」 『서지학연구』 15.

6) 정재영, 1998, 「合部金光明經(卷三)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구결연구』 3.

7) 정승석편, 1989, 『佛典解說事典』, 민족사, 52쪽.

8) 정승석편, 1998, 『고려대장경』 해제 1권, 고려대장경연구소, 122쪽.

9) 정승석편, 1998, 앞 책 3권, 1803쪽.

10) 이러한 사실에 대해 당나라 및 송나라계열의 어느 佛典目錄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거란본일 가능성도 배

入藏되어 있다.

한편 『고려대장경』에 入藏된 『합부금광명경』과 필자가 입수한 구결본을 상호 비교해 보기로 하자. 구결본은 제 1장이 缺落되어 살펴볼 수 없으나, 제 2장의 경우 25행 17자이었다. 『고려대장경』은 그 板式에 있어서 제1장의 行字數는 대개 22行 14字이며, 그 나머지 장은 23行 14字로 구성되어 있어<sup>11)</sup>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려대장경』의 본문 卷首題 형식은 “合部金光明經卷三 第二張”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구결본은 “金三 二”로 판각되어 있다. 또 『고려대장경』에는 3권이 21장인데 비해 구결본은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두 본의 각성인을 상호 대조해 본 결과 『고려대장경』에는 총 21장 중에서 제2·4~19·21장에 ‘夫令’, 제20장 ‘富令’이 새겨져있다. 그리고 구결본에는 제3장에 ‘存植’, 제5장 ‘立成’, 제6장 ‘正安’, 제7장 ‘正’, 제8·9장 ‘昌’, 제13장 ‘孝兼’이 각각 새겨져 있어 이들에 의해 경판이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본의 참여 각성인의 인명도 각기 다르게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구결본은 『합부금광명경』과는 경전의 내용과 板式, 그 구성 체계는 물론 彫成에 참여한 각성인도 다른 경전임을 알 수 있다<sup>12)</sup>.

그래서 두 본의 彫成에 참여한 각성인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자. 『합부금광명경』卷3의 구성에 참여한 ‘夫令’ 및 ‘富令’<sup>13)</sup>은 동일인으로 파악되는데 그 사례를 제시해 보면,

經名	卷	函	年度	都監	至張	刻成人	板數	張次
勝思惟梵天所問經	6	及	30	대장	24	富令	3	24.19
勝思惟梵天所問經	6	及	30	대장	24	夫令	17	35~11.13.14.16~18.21~24

위의 내용은 고종 30년 대장도감에서 조성된 『勝思惟梵天所問經』권6의 각성인 내용이다. 전체 24장을 ‘夫令’ 및 ‘富令’이 각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2·4·19장에는 ‘富令’으로 인·법명을 새겼으나 나머지 장에는 ‘夫令’으로 새겨두었다. 이러한 인·법명의 새김 방식은 『고려대장경』 각성인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夫令’과 ‘富令’이 동일인임을 알 수 있다<sup>14)</sup>. 따라

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또 고려 후기에 간행된 思溪本 및 元本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佛典이라고 한다. 정필모, 1989, 「高麗再雕大藏目錄考」 『圖書館學』 17, 41쪽 및 박영수, 1957, 「高麗大藏經의 研究」 『백성옥박사송수기념 불교학논문집』, 452쪽.

11) 최영호, 1996, 앞의 책 (주 1), 57~59쪽.

12) 그 밖에 본문의 내용과 書體, 梵語의 표기 등에 따른 원문서지학적 검토는 남권희, 앞 글 (주 5)에서 이미 다루어진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

13) 『고려대장경』 각성인에 대한 각성활동 자료는 다음의 자료집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김윤곤편, 2001, 『高麗大藏經 彫成名錄集』, 영남대출판부.

14) 이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은 다음의 논고에서 상론된 바 있다.

최연주, 2001, 「江華京板『高麗大藏經』의 刻成者 참여실태와 그 특성」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한국중세사학회.

서 ‘夫令’ 및 ‘富令’은 동일인으로 『합부금광명경』권3은 ‘부령’이라는 각성인이 모두 각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부령’의 각성활동을 조사해 본 결과 ‘부령’은 ‘夫令’·‘富令’·‘富令刊’·‘富令手’로 각각 새기면서 다음과 같이 참여하였다.

‘夫令’·‘富令’	25 대 1-1-7(8) <sup>15)</sup>	
	26 대 1-1-2(2)	
	29 대 1-1-19(21)	
	30 대 13-14-53(60)	분 7-14-20(28)
	31 대 20-28-45(56)	분 4-8-11(16)
	32 대 2-6-55(59)	
	무 3-4-7(16)	

‘富令’은 고종 25년, 26년, 29년, 그리고 고종 30년부터 32년까지 6년간 대장도감과 분사대장도감에 활동한 각성인으로 자신의 인·법명에 ‘手’, ‘刊’이라고 새긴 점과 각성량이 260여장임을 고려해 볼 때 판각능력이 뛰어난 각자승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구결본 彫成에 참여한 ‘存植’, ‘立成’, ‘正安’, ‘昌’, ‘孝兼’의 『고려대장경』각성사업 참여 활동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자. 조사된 각수 중에서 ‘立成’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昌’은 한 자만 새겨져 있어 각성인의 확인이 불분명하므로<sup>16)</sup> 제외하고 나머지 인·법명의 각성 추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1) 經名	卷	函	年	都監	至張	刻成人	板數	張次
K-3	8	芥	25	대장	31	孝謙	2	1920
K-3	13	薑	25	대장	31	孝謙	2	1718
K-28	單	乃	25	대장	29	孝謙	2	23
K-28	單	乃	25	대장	29	孝兼	21	4~11.13~16.18.19.21~27
K-28	單	乃	25	대장	29	比丘孝兼刻	1	29
K-6	2	淡	26	대장	33	孝謙	5	24.26.27.29.32

15) 25 대 1-1-7(8)은 특정 각성인이 고종 25년 대장도감에서 1종의 경전 및 1권을 조성하였는데, 7은 자신의 인·법명을 새긴 張數를 표시한 것이며, ( )는 인명이 새겨진 장수를 근거로 총판각량을 계산한 것이다. 이하 내용 동일.

16) 『고려대장경』 조성에 참여한 각성인중 ‘昌’이란 인·법명이 있는 경우는 ‘孫昌’, ‘堅昌’, ‘昌夫’, ‘昌甫’, ‘昌著’, ‘保昌’, ‘益昌’ 등이 있다.

K-6	2	淡	26	대장	33	比丘孝兼	1	33
K-60	3	弔	26	대장	28	孝兼	11	7~9.12.13.15.17.19.22.24.25
K-22	47	帝	27	대장	28	孝兼	2	23
K-174	5	常	30	대장	15	孝兼	15	1~15
K-585	3	資	30	대장	16	孝兼	8	9~16
K-648	22	夙	30	대장	24	孝兼	3	5~7
K-648	54	淸	30	대장	30	孝兼	3	2~4
K-649	37	馨	30	대장	18	孝兼	2	13.14
K-649	49	如	30	대장	31	孝兼	2	17.18
K-802	7	宜	30	대장	22	孝兼	1	13
K-813	單	甚	30	대장	5	孝兼	1	2
K-1050	6	仙	30	대장	35	孝兼	1	11
K-1408	1	遵	30	대장	19	孝兼	1	9
K-961	上	都	30	분사	37	孝兼	2	34.35
K-1050	11	靈	30	분사	25	孝兼	1	1
K-1052	9	帳	30	분사	40	孝兼	1	11
K-1081	13	亦	30	분사	51	孝兼	1	48
K-1081	28	群	30	분사	61	孝兼	1	40
K-589	下	君	30	분사	25	孝兼	5	21~25
K-801	3	定	30	분사	24	孝兼	3	21~23
K-889	7	學	31	대장	44	孝兼	1	17
K-890	7	攝	31	대장	29	孝兼	2	8.9
K-896	12	下	31	대장	35	孝兼	3	22.23.28
K-914	8	受	31	대장	19	孝謙	2	14.15
K-923	下	訓	31	대장	36	孝兼	2	34
K-952	20	慈	31	대장	24	孝兼	1	22
K-952	47	造	31	대장	24	孝兼	1	23
K-952	74	離	31	대장	22	孝兼	1	13
K-952	109	廉	31	대장	24	孝兼	1	11
K-955	11	守	31	대장	21	孝兼	2	16.17
K-956	9	志	31	대장	28	孝兼	2	19.20
K-956	42	意	31	대장	26	孝兼	2	17.18

K-956	55	移	31	대장	22	孝兼	1	4
K-958	4	自	31	대장	27	孝兼	2	2021
K-1423	19	煩	31	대장	19	孝兼	1	12
K-1434	5	煎	31	대장	16	孝兼	1	4
K-1466	29	沙	31	대장	17	孝兼	1	5
K-1476	18	靑	31	대장	9	孝兼	1	2
K-1484	1	秦	31	대장	16	孝兼	1	5
K-1488	14	云	31	대장	13	孝兼	1	6
K-1496	12	塞	31	대장	11	孝兼	2	10.11
K-889	18	優	31	분사	40	孝兼	2	9.10
K-951	21	切	31	분사	37	孝兼	1	7
K-951	41	箴	31	분사	39	孝兼	2	24.25
K-126	4	輕	31	분사	14	孝兼	2	12
K-1063	2	納	32	대장	51	孝兼	7	10.20.29.30.33.39.51
K-1050	50	傍	33	분사	30	孝兼	1	3
K-765		下 思		· 무	24	孝兼	1	23
K-1454	1	軍		· 무	20	孝兼	2	9.10
가-2) K-1	108	盈	25	대장	23	存植	8	1.2.5.7.9.11.20.23
K-1	254	餘	25	대장	25	存植	6	1.11.13.17.21.23
K-1	254	餘	25	대장	25	存植刻	1	25
K-1	431	水	25	대장	25	存植	10	1.3.6.9.11.13.15.17.19.23
K-1	431	水	25	대장	25	存植刻	1	25
K-1	530	珠	26	대장	25	存植	8	9.11.13.16.20.21.23.24
K-1	566	果	26	대장	23	存植	1	23
K-313		單 才		26 대장	4	存植	2	14
K-549	81	表	28	대장	29	存植	1	29
K-385	13	忘	29	대장	36	存植	2	16.26
K-425	3	悲	30	대장	32	存植	2	10.11
가-3) K-1	511	闕	25	대장	27	正安	1	27
K-1	561	果	26	대장	25	正	2	13.16

K-1	561	果	26	대장	25	正安	9	12.14.15.17.18.20.23~25
K-527		下 賢	28	대장	27	正安	1	27
K-549	83	表	28	대장	25	正安	2	27
K-402	3	覆	29	대장	27	正安	3	5.11.19
K-571	14	尺	29	대장	27	正安	1	27

먼저 가)에 제시된 ‘孝謙’, ‘存植’, ‘正安’의 각성추이를 비교해 보면 동일 經典과 동일 卷次가 없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예를 들면 3명의 각성인 모두가 고종 25년 대장도감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孝謙’은 K-3의 권8, 권13, 그리고 單卷인 K-28을 각성하였다. 그리고 ‘存植’은 K-1의 권108, 권254, 권431을, ‘正安’은 K-1의 권511을 각성하였다. 만약 대장도감이 동일 공간이었다면 참여한 경전 역시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다른 경전을 조성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의 활동 공간이 달랐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장도감 산하에 경판의 판각을 위한 官署工房, 新設工房 및 寺院 등지에서 『고려대장경』 경판이 판각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위 3명의 각성인들은 비록 고종 25년 대장도감에서 활동하였으나 각기 다른 彫成 空間에서 경판을 각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7)</sup>. 그래서 개인별 활동 추이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위 가-1)의 ‘孝謙’은 고종 25~27, 30~33년까지 대장도감과 분사대장도감에서 7년간 활동하면서 대장도감에서 168장, 분사대장도감에서 29장, 그리고 無刊記 4장 등 총 201장을 각성하였다. 특히 고종 25년에 K-28을 彫成하면서 총 29장의 맨 마지막 장에 ‘比丘孝謙刻’이라고 새긴 것으로 보아 승려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는 『고려대장경』 각성사업 이전부터 사원에서 활동하던 刻字僧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2)의 ‘存植’은 고종 25, 26, 28~30년까지 5년간 대장도감에서만 활동하면서 160여 장을 각성하였다. 고종 25년에 K-1의 권254와 권431을 각성하면서 ‘存植刻’이라고 밝힌 점, 그리고 K-1의 권108, 권431, 권530을 모두 각성한 점으로 보아 전문 각수내지 각자승으로 파악된다. 다음 가-3)의 ‘正安’ 역시 고종 25, 26, 28, 29년까지 4년간 참여하면서 대장도감에서 123장을 각성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판각 능력이 매우 우수한 각성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분의 『합부금광명경』 조성에 참여한 각성인들은 경판의 판각능력이 매우 뛰어난 전문 각수내지 각자승으로서 『고려대장경』 각성사업에서 매우 비중있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17)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논고를 참조하라.

김윤근, 1998, 『高麗大藏經』 조성의 참여계층과 彫成處, 『인문과학』 12, 경북대.

최연주, 1998, 「高宗 24年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刻成事業」, 『한국중세사연구』 5.

최영호, 2002, 「13세기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각성사업과 해인사」, 『한국중세사연구』 13.



그런데 ‘存植’, ‘正安’은 『고려대장경』각성사업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별도의 불교 경전 판각에도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13세기 중엽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圓覺類解』, 『弘贊法華傳』<sup>18)</sup>와 고종 33년에 간행된 『禪門三家拈頌集』<sup>19)</sup>에 판각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당 경전의 주요 張에서 조사 및 파악된 인·법명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圓覺類解』: ‘存植’, ‘古大’, ‘大才’, ‘上者’, ‘金升’, ‘有立’, ‘大有’

『弘贊法華傳』: ‘存植’, ‘正安’

『禪門三家拈頌集』: ‘正安’, ‘孫昌’, ‘有立’

위 3종의 경전은 『고려대장경』에 入藏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각성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圓覺類解』 및 『弘贊法華傳』의 ‘存植’, 그리고 『弘贊法華傳』 및 『禪門三家拈頌集』의 ‘正安’은 구결본의 각수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주목된다. 즉 ‘존식’과 ‘정안’은 『고려대장경』각성사업에 각성인으로 활동하면서 『圓覺類解』, 『弘贊法華傳』, 『禪門三家拈頌集』을 판각했다는 점이다.

특히 위 『禪門三家拈頌集』에 수록된 天英의 後序에 따르면 고종 33년에 간행되었다<sup>20)</sup>고 한다. 이는 각성사업의 추진기구인 대장도감이나 분사대장도감에서 산출된 경전이 아닌 것으로 국가적 사업과 별도로 간행된 경전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正安’을 제외한 ‘孫昌’과 ‘有立’의 각성활동을 조사해 본 결과 ‘孫昌’은 고종 24년에만 참여하였고, ‘有立’은 고종 24~29년, 31년 등 7년간 참여하였다. ‘正安’과 ‘存植’처럼 고종 24~31년 사이에 사업에 참여하였다. 다시 말하면 『고려대장경』각성사업은 고종 24년부터 38년까지 14년간 경관이 산출되고 있는 점<sup>21)</sup>을 감안한다면 이들 3명의 각성인은 사업 참여 후인 고종 33년에 『禪門三家拈頌集』을 조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제시된 3종의 經典 조성에 참여한 각성인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圓覺類解』의 ‘古大’, ‘大才’, ‘上者’, ‘金升’, ‘大有’의 각성사업 참여 시점을 조사해 본 결과 ‘大才’는 고종 24, 25, 28~31년까지, ‘金升’은 고종 24~35년까지, ‘古大’는 고종 31년, ‘大有’는 고종 32년에 각각 활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弘贊法華傳』의 ‘存植’, ‘正安’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고종 24~30년, 또 구결본의 ‘孝兼’은 고종 25~27, 30~33년에 각성사업에 참여하고

18) 남권희, 1997, 앞 글 (주 5).

19) 채상식, 1991, 앞 책 (주 3) ; 천혜봉, 1990, 『韓國典籍印刷史』, 범우사.

20) 채상식, 1991, 앞 책 (주 3), 56~57쪽.

21) 『고려대장경』은 『高麗史』에 의하면 고종 24년부터 16년간 조성되었다고 하였으나(『高麗史』권24, 고종 38년 9월 임오), 刊記에 의하면 고종 24년부터 고종 38년까지(고종 36년에는 경관이 산출되지 않았음) 14년간 산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있었다. 이들의 각성사업 참여 시점이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특히 『禪門三家拈頌集』에 참여한 ‘正安’·‘有立’, 『圓覺類解』에 참여한 ‘存植’·‘有立’, 그리고 『弘贊法華傳』에 참여한 ‘存植’·‘正安’, 마지막으로 구결본에 참여한 ‘存植’·‘正安’ 등 서로 상호 중복된다는 점은 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구결본을 비롯한 3종의 불교 경전 조성에 참여한 각성인은 그 시차가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한 각수내지 각자승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합부금광명경』이 고종 29년에 조성된 점을 감안한다면 구결본은 동일시기, 즉 고종 25~29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sup>22)</sup>.

『합부금광명경』과는 그 판본이나 내용이 相異한 구결본이 각성인에 의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은 각성사업의 운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국가적 사업이었던 『고려대장경』 각성사업에도 『합부금광명경』이 조성되고 있었고, 또 사업에 참여한 각성인이 구결본 간행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각성인은 각자의 능력과 여건에 따라 각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구결본을 비롯한 3종의 불교경전의 간행 사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당시 불교계는 민족적 위기인 대몽항쟁기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考文學的 발전을 추구하면서, 이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을 것이다.

각성사업은 각자승과 學僧 등의 불교 지식인층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초기에는 대장도감 산하의 官署工房 및 新設工房, 그리고 寺院 등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분사대장도감 설치 이후에는 대장도감 및 분사대장도감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속에서 경판을 산출하였던 것이다<sup>23)</sup>. 각성사업은 강화경이나, 남해 및 진주라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어 전개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산재한 彫成 空間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구결본을 비롯한 3종의 불교 경전 간행에 각성사업의 각성인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대장경』 조성 중에 구결본을 별도로 彫成하였을까. 이는 대몽항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므로 『합부금광명경』의 성격과 그 위상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 Ⅲ. 『合部金光明經』 간행과 대몽 항쟁

『金光明經』은 『妙法蓮華經』·『仁王經』과 함께 호국삼부경 중의 하나이다. 이들 경전은 佛法의 信解와 奉持로써 나라를 보호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불교가 공인된 이래로 우리나라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22) 『합부금광명경』의 간행시점을 고종 28년 전후로 추정할 바 있다. 남권희, 앞 글 (주 5).

23) 이에 대해서는 최연주, 2004, 『高麗大藏經』 刻成人의 참여형태와 彫成空間』 『한국중세사연구』 16, 참조.

『金光明經』은 불교 경전 가운데 최초의 호국사상을 설한 경전으로 4세기에 성립되었는데, 이 경의 왕법정론품에는 政治治國이라는 불교 본래의 정치이념과 더불어 바라문법전을 모방한 왕권신수설이 병론되어 있다. 즉 『금광명경』의 「사천왕관찰인품」, 「사천왕호국품」, 「사천왕품」, 그리고 「왕법정론품」, 「정론품」 등에는 왕이 불교를 진심으로 믿고 비구를 잘 받들면, 그 보답으로 四天王이나 여러 善神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더욱이 이 경전은 金鼓에서 울려 나오는 법문을 믿고 자기 죄를 참회하면 자기 자신은 물론 국가와 국왕 모두 護國神으로부터 호위된다고 하며, 이 경전의 도량을 열면 기우와 내우외환이 소멸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四天王에 의한 국가의 보호나 현세이익적인 신앙으로<sup>24)</sup> 이해되고 있다.

이처럼 호국 경전으로서 중요한 위상을 가진 『금광명경』은 고려시대 수시로 간행되고 있었다. 현종 11년에 鑄鐘 親擊과 아울러 工人들에게 특명을 내려 『大品般若經』600권과 『三本華嚴經』, 『妙法蓮華經』 등을 새길 때 같이 간행된 바 있다<sup>25)</sup>. 그리고 인종은 『金光明經』에 관심이 많았는데, 유가업 승려인 德謙이 천흥사에 기거하면서 왕명으로 『금광명경』의 요체를 뽑은 疏를 3권 지어 바쳤으며, 이를 계기로 인종이 그를 더욱 공경하였다<sup>26)</sup>. 그리고 해인사에 소장된 판본 중 보물 제 734호로 지정된 26종의 유물에도 『金光明經』이 있다. 이 경전은 『고려대장경』에 K-1465로서 精函에 각각 入藏된 경전의 2중본으로 파악하였으나,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2중본이라기 보다는 당시 해인사에서 조성된 경전으로 보고 있다<sup>27)</sup>. 또 앞서 검토한 구결본이 있다.

먼저 『금광명경』의 성격과 경전이 가지는 위상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이 경전은 왕권 보호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데, 顯宗때 蔡忠順이 撰한 다음의 내용이 주목된다.

나) 『金光明經』에 이르기를 업을 모았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왕으로 태어났고 나라를 영도하였기 때문에 인왕이라 한다. 태속에 있을 때도 모든 하늘이 수호하며 혹은 먼저 수호를 받은 연후에 태 안에 들기도 한다. 비록 인간 속에 있어도 사람의 왕으로 태어난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지금 성상께서도 모든 하늘이 수호하여 왕으로 태어나서 동방을 다스리어 이어 깊은 덕을 순박하게 하십니다. 높이 만승의 자리에 있고 성품은 두루 총명하심을 받으셨습니다.(「玄化寺碑陰記」, 『韓國金石全文』 中世 上)

위의 내용에 따르면 『금광명경』은 국왕 탄생이 제불다천의 보호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불교

24) 정승석편, 1989, 앞 책 (주 7), 53쪽.

25) 「玄化寺碑陰記」, 『韓國金石全文』 中世 上.

26) 「圓證僧統德謙墓誌」, 『韓國金石全文』 中世 上.

27) 김윤근, 1996, 앞 글 (주 2)에서 판본의 검토 등과 관련하여 상론하고 있으므로 참조하라.

인연설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국왕은 탄생에서부터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여 그 신성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왕의 탄생뿐 아니라 그 위상이나 지위도 신성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四天王과 그 권속들이 佛法과 국토 및 국왕을 수호해 준다고 믿고 있었다.

특히 穆宗代부터 顯宗代까지 관인지식인인 蔡忠順이 위의 내용을 撰書한 점이 주목된다. 그는 목종이 大良院君(현종)에게 왕위를 禪位하는 불안한 정국 상황에서 親顯宗派로 왕위 계승에 기여한 친왕세력이며, 또 거란의 침략으로 현종이 南行하였을 때도 끝까지 侍從하였다.<sup>28)</sup> 그러므로 채충순이 『금광명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왕권의 신성함을 강조한 점은 불안한 왕권의 수호와 왕권의 신성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금광명경』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여진다.<sup>29)</sup> 결국 『금광명경』이 담고 있는 사상은 왕권 안정을 위해 적극 수용되고 있었고, 그 바탕에는 왕권의 신성불가와 안정을 정당화하는 이론서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은 다음의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인종때 金富軾이 撰한 「金光明經道場疏」에,

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부처님의 三身은 본래 權化가 있어 몸이 靈鷲山에 나타나시고, 萬德이 원만하게 광명을 이루어 恒河의 모래에 두루하였습니다. … 秘殿을 청소하고 공손히 法筵을 열어서 옥같이 순수하고 맑은 부처님의 像에 예배하며, 황금 같은 부처님 말씀의 오묘한 이치를 강연합니다. 宰·樞 兩府와 문무 백관을 거느리고 온 몸을 다하여 예를 올리며, 여러 사람이 근심하고 탄식하는 기도를 표하오니, 지혜로우신 밝음으로 정성스러운 衷心을 굽어 살피실 줄 압니다. 엎드려 원하옵건대 자비하신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소서. 신의 조화를 빌어서 가뭄이 사라져 메마른 붉은 땅이 되는 재난이 없게 하시고, 雨師를 고무시켜 하늘로부터 비 내림이 고루 흠족하게 하소서. 모든 재앙은 소멸되고 유리한 것은 모두 발흥하여 백성들은 富하고 壽하는 길로 돌아가고, 나라에는 풍부한 수확물의 축적이 있게 하소서.(『東文選』 권110, 「金光明經道場疏」)

라고 하였다. 즉 김부식은 금광명경도량을 개최하면서 宰·樞 兩府와 문무 백관 등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부처님의 조화를 빌어서 가뭄과 재난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또 祈雨를 빌고 모든 재앙은 소멸되기를 바라면서 백성들은 富하고 壽하며, 나라에는 풍부한 수확물의 축적될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다. 더욱이 김부식은 '기강은 서지 않고 풍속은 날로 퇴폐합니다. 벼슬하는 사람은 직분을 잘 지키지 못하여 타성에 젖어 탐욕·부정하기까지 하며, 백성들은 생업에 편안하지 못하므로 곤궁 유리하여서 모두들 원망하고 한탄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라고

28) 『高麗史』 권93, 열전6, 채충순.

29) 최영호, 1997, 「瑜伽宗의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각성사업 참여」 『부산사학』 33, 48~49쪽.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李資謙의 난과 妙淸의 난으로 고려의 존립기반이 위협받던 직후에 왕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 도량을 개설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이 내용은 『금광명경』은 金鼓에서 울려나오는 법문을 믿고 자기의 죄를 참회하면 자기 자신은 물론 국가와 국왕 모두 호국신으로부터 호위되며, 이 경전의 도량을 열면 祈雨와 內憂外患이 소멸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현실인식으로 그 의미는 대동소이하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은 고려왕조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건으로 전자는 신하의 입장에서 왕실의 찬탈을 꾀하였던 것이며, 후자는 고려왕조를 타도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반란이었다. 건국 이후 고려사회가 이처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적은 없었는데, 국가적인 위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김부식은 12세기 고려 귀족사회의 모순으로 야기된 국가적인 위기를 깊이 성찰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하였다<sup>30)</sup>. 그래서 김부식 등은 왕권의 안정을 위해 금광명경도량을 개설한 것이다. 즉 『금광명경』은 국가를 보호하고 내우외환을 소멸시키기 위해 왕실을 비롯한 관료층들이 깊이 존신하고 권장하려 하였던 불교 경전임을 알 수 있다.

『금광명경』은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때에 시작하여 고려 때 빈번히 열렸던 功德天道場과 金剛經道場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경전<sup>31)</sup>이다. 특히 功德天道場은 護國經으로 꼽히는 『금광명경』에 근거하고 있는데<sup>32)</sup>, 고려 對蒙抗爭期에 주로 仁王道場과 함께 功德天道場이 빈번하게 개최되었다<sup>33)</sup>.

고종 12년 몽고 사신 著古與의 피살을 계기로 몽고는 고려와의 외교관계를 단절시킨 후<sup>34)</sup> 6년 뒤인 18년 8월에 撤禮塔이 이끄는 몽고군 침입을 개시로<sup>35)</sup> 40여년에 걸친 대몽항쟁이 시작되었다. 몽고군은 침입은 강화도로 천도한 고려 정부에 대하여 교섭하는 일이 없이, 대규모로 그저 고려의 전 국토를 가림없이 가혹한 군사행동으로 유린하여<sup>36)</sup>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민생이 피폐해지는 등 고려의 피해 규모는 막대하였다. 이때 고려 정부는 군사적 대응으로 몽고군의 침입을 막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海島 및 山城 入保에 의한 淸野策으로 일관하였다. 즉 몽고군이 쳐들어오면 적극적인 항몽전선을 구축하기보다는 몽고군을 피해 海島이나 山城으로 피난을 가는 소극적인 항몽책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우선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기로 하자.

30) 김철준, 1983, 「高麗中期의 文化意識과 史學의 性格」 『韓國의 歷史認識』(上), 창작과비평사 및 신형식, 2001, 「김부식」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상), 창작과비평사 참조.

31) 이재창, 1982, 『불교경전개설』, 동국대출판부, 167쪽.

32) 서윤길, 1977, 「고려의 호국법회와 도량」 『불교학보』 14, 참조.

33) 윤용혁, 2000, 「고려 대몽항쟁기의 불교의례」 『高麗 三別抄의 對蒙抗爭』, 일지사, 60~71쪽.

34) 『高麗史』 권22, 고종 12년 春正月條.

35) 『高麗史』 권23, 고종 18년 秋8月條.

36) 강진철, 1981, 「대몽항쟁」 『한국사』7, 국사편찬위원회, 350~351쪽.

- 라-1) 몽고군이 平州로부터 宣義門 밖에까지 와서 주둔하고, 蒲桃元帥는 金郊에 주둔하였으며, 迪巨元帥는 吾山에 주둔하고, 唐古元帥는 蒲里에 주둔했다. 선봉대가 예성강에 도달하여 가옥을 불지르고 백성을 죽이고 약탈함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으므로 개경에서는 놀라 소요가 일어나고 민심이 흉흉해졌다.(『高麗史』 권23, 고종 18년 11월 辛亥)
- 라-2) 이해에 몽고병의 포로가 된 남녀가 무려 206,800인이었고, 살육된 자는 셀 수 없으며, 지나가는 주군들은 다 잣더미로 되었다. 몽고병란이 있는 뒤로 이보다 심한 때가 없었다.(『高麗史』 권24, 고종 41년 12월)
- 라-3) 諸道 郡縣에서 산성·해도 입보한 자를 모두 출륙하게 하였는데 그 때 公山城에 습화된 군현민은 식량이 떨어졌다. 길이 먼 자는 餓死가 심히 많았으며, 노약자들이 거꾸러져 구렁을 매웠고 어린아이를 나무에 매어 두고 가는 자가 있기까지 하였다.(『高麗史』 권24, 고종 42년 3월 丙午)

위에서 라-1)에서 몽고군은 닥치는 대로 살육과 방화를 일삼고 있어 몽고군의 무자비한 학살의 실상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포로로 잡혀간 고려민이 고종 41년 한 해만도 20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라-3)에서 식량이 부족하여 굶어 죽는 경우도 허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몽고군은 인명의 살상과 방화 등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민생이 피폐해지는 등 고려의 피해 규모는 막대하였다.

이 같은 처참한 상황이었지만 비록 적극적으로 대몽항쟁 전선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국왕을 비롯한 집권층들은 전쟁의 종식을 하루 빨리 기원하기 위해 功德天道場을 개설하여 몽고병이 물러가기를 기원하였다.

- 마-1) 왕이 功德天道場을 內殿에서 친히 열었다.(『高麗史』 권23, 고종 22년 3월 甲辰)
- 마-2) 왕이 내전에서 功德天道場을 열었다.(『高麗史』 권23, 고종 23년 8월 甲午)
- 마-3) 왕이 친히 功德天道場과 藥師道場을 열었다.(『高麗史』 권24, 고종 41년 6월 戊午)

위 내용은 고종 년간에 개최된 공덕천도량 중에서 일부를 제시<sup>37)</sup>한 것이다. 『금광명경』은 『仁王經』처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護國의 法用을 교설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표현의 차이는 서로 있더라도 두 경전의 사상과 호국적인 면은 대동소이한 것이다<sup>38)</sup>. 따라서 공덕천도량은 몽고군의 침입이후부터 개최된 것으로 대외관계상의 위기상황을 배경으로 한 호국적 성격의 범

37) 『고려사』에는 이외에도 고종 29년 가을 7월, 37년 5월, 38년 5월, 40년 2월, 40년 4월, 42년 8월 등을 비롯하여 원 종대에도 수시로 왕이 친히 功德天道場을 열기도 하였다.

38) 서윤길, 1994, 『고려밀교사상사 연구』, 불광출판사, 180쪽.

회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李奎報가 지은 금광명경도량문에서도 확인된다.

바) 金鼓를 쳐서 선양함은 信相을 친히 듣고서 부르짖는 말이요, 비단주머니에 몰래 싸 둔 것은 약사 부처님의 本願인 큰 경이니, 이 경을 높이 모시기를 정심껏 하면, 보전해 가짐이 장애가 없으리다. ... 국가의 일은 마치 쉼나무를 안아다 불 위에 두는 듯해서 거의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불귀신[回祿]이 재앙을 일으켜서 창고가 불타버리고, 겨울귀신[玄冥]이 절후를 경계하여 우리와 번개가 진동하니, 이 같은 변괴는 마침내 어떠한 재앙들이 될지 알 수 없으므로, 마땅히 신묘한 불문에 의지하여 부처님의 음덕을 힘입어야 하겠기에 이에 누더기옷의 진실한 스님들을 모으고 貝葉의 미묘한 말씀을 풀어냅니다. 자비하신 부처님께 우리러 바라오니, 꼭진히 보호하여 주셔서 병장기를 감추어 쓰지 아니하며, 도둑들의 가만히 엿봄이 아주 없어지고, 집집마다 공작을 받을 만하여서 生靈들의 큰 번계하여 지이다.(『東文選』 권114, 「北弘景院行鎮兵金經藥師道場文」)

위 내용은 이규보가 北弘景院에서 전쟁을 진정하려고 『금광명경』의 藥師道場을 행하는 글이다. 이규보는 『금광명경』은 약사 부처님의 本願인 큰 경으로, 모시기를 정심껏 하면 장애가 없다고 하면서 전쟁이 하루 빨리 종식되어 외적이 물러가기를 바라고 있다.

더욱이 이규보는 대몽항쟁과정에서 죽은 고려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개최한 금광명경도량에서도 '신령스러운 경전을 강하게 하고, 팔십 가지의 자비한 불상을 우리러서 삼가 공양을 올립니다. 앞드려 원합니다. 여러 혼령들이여, 모든 집착을 길이 없애고, 참되고 영원한 곳에 높이 오르소서. 이 번열과 괴로움 많은 세계를 헌신 벗듯 속히 벗어나고, 집에 돌아가듯이 저 처량한 나라로 곧 가소서'<sup>39)</sup>라고 하면서 消災의 염원을 기원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몽고군의 무차별적인 살육과 방화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와해된 고려민들로서는 무력항쟁과 함께 부처의 힘을 빌어 외적이 물러가기를 기원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금광명경』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 줄 수 있는 것이라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실의에 빠진 당시의 수많은 민중들에게 희망을 고취시켜 주는 하나의 활력소가 되었을 것이다.

결국 『금광명경』은 대몽항쟁기에 나라의 내우외환을 소멸시키고 국왕을 중심으로 국가의 안정을 기원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호국경전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습부금광명경』의 성격은 『고려대장경』이 국왕을 정점으로 한 반외세력인 몽고군을 격퇴시키고, 또 최씨무인정권으로부터 왕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적극 반영되어 있음과도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39) 『東文選』 권114, 「興國寺諸魂利往說金經文」.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고려대장경』 각성사업에서도 『합부금광명경』을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부터 활동하던 각성인 ‘存植’, ‘正安’, ‘孝兼’ 등이 구결본을 판각한 것은 고려민들의 현실인식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민족적·국가적 사업이었던 각성사업에 적극 동참하면서 고려 불교의 창조적 발전은 물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야만적인 파괴로부터 문명을 수호하려는<sup>40)</sup> 反蒙抗戰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몽고군의 야만적인 살육으로 인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와해되고, 국가의 存亡이 위태롭게 되자 내우외환을 소멸시키고 국왕을 중심으로 단결을 이루고자 하였을 것이다.

#### IV. 맺음말

본고는 13세기 중엽에 간행된 구결본과 『합부금광명경』의 각성인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합부금광명경』이 지닌 위상과 그 성격을 검토한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합부금광명경』과 필자가 입수한 구결본을 상호 비교해 본 결과 경전의 내용과 판식, 그 구성 체계가 相異한 본이었다. 그리고 이들 경전에 참여한 각성인을 조사해 본 결과 『고려대장경』본에는 ‘부령’이라는 각성인이 참여한 반면 구결본은 ‘存植’, ‘立成’, ‘正安’, ‘孝兼’ 등에 의해 彫成하였다. 구결본 조성에 참여한 ‘存植’, ‘正安’, ‘孝兼’은 고종 24년부터 전개된 각성사업에 참여한 각성인들과 동일 인물이었다. ‘存植’을 비롯한 각성인들은 각성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전문 각수내지 각자승들이었다. 『고려대장경』 각성사업은 당시 중앙과 지방, 그리고 사원에서 활동하고 있던 刻手 및 刻字僧, 學僧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이들은 고종 33년에 간행된 『禪門三家拈頌集』의 彫成과 13세기 중엽에 간행된 『圓覺類解』, 『弘贊法華傳』의 彫成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고려대장경』에 入藏된 『합부금광명경』이 고종 29년에 간행된 점과 이들의 각성활동 시기를 중심으로 구결본의 간행시기를 유추해 본 결과 동일 시기에 두 본이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국가적 사업이었던 『고려대장경』 각성사업에도 참여하면서 구결본 『합부금광명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다음 『合部金光明經』의 성격과 대몽항쟁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金光明經』은 『妙法蓮華經』·『仁王經』과 함께 호국삼부경 중의 하나로서 고려시기에 수시로 간행되고 있었다. 『금광

40) 이우성, 1983, 「高麗中期的 民族敘事詩」 『韓國의 歷史認識』(上), 창작과 비평사.



명경』은 국가를 보호하고 내우외환을 소멸시키기 위해 왕실을 비롯한 관료층들이 깊이 존신하고 권장하려 하였던 불교 경전이였다. 결국 『금광명경』은 국토의 수호는 물론 왕권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고종 18년 몽고군의 침입이후 무차별적으로 공격으로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민생이 피폐해지는 등 고려의 피해 규모가 막대하자 국왕을 비롯한 집권층들은 전쟁의 종식을 하루 빨리 기원하기 위해 『금광명경』을 바탕으로 한 功德天道場을 개설하여 몽고병이 물러가기를 기원하였다. 이는 대외관계상의 위기상황을 배경으로 한 護國的 성격의 法會를 개최하면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합부금광명경』의 간행 배경에는 『고려대장경』이 국왕을 정점으로 반외세력인 몽고군을 격퇴시키고, 또 최씨무인정권으로부터 왕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적극 반영되어 있었다. 『고려대장경』 각성사업에서도 『합부금광명경』을 조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초기부터 활동하던 각성인 ‘存植’, ‘正安’, ‘孝兼’ 등이 구결본을 판각한 것은 고려민들의 현실인식을 적극 수용하면서 佛力에 의한 몽고군의 격퇴를 염원하는 한편, 왕권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야만적인 파괴로부터 문명을 수호하려는 반몽항전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따라서 구결본의 간행은 민족적·국가적 사업이었던 각성사업에 적극 동참하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고려 불교의 창조적 발전은 물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호국의식을 바탕으로 두고 있었다.

다만 본고에서 검토한 『합부금광명경』의 조성과 관련하여 조성 배경과 종파에 대한 문제는 언급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추후에 『禪門三家拈頌集』, 『圓覺類解』, 『弘贊法華傳』 등 각성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경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를 통해 재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高麗史』, 『東文選』, 『韓國金石全文』.

강진철, 1981, 「대몽항쟁」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고익진, 1987, 『韓國撰述佛書의 研究』, 민족사.

김윤근, 1997, 「고려대장경의 東亞大本과 彫成主體에 대한 考察」 『석당논총』 24, 동아대.

김윤근, 1998, 「『高麗大藏經』 조성의 참여계층과 彫成處」 『인문과학』 12, 경북대.

김윤근, 2002,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불교시대사.

김윤근편, 2001, 『高麗大藏經 彫成名錄集』, 영남대출판부.

김철준, 1983, 「高麗中期의 文化意識과 史學의 性格」 『韓國의 歷史認識』(上), 창작과비평사.

남권희, 1997, 「13세기 天台宗 관련 高麗佛經 3種의 書誌의 考察-『圓覺類解』, 『弘贊法華傳』, 『法華文句并記節要』 『季刊書誌學報』 19.

남권희, 1998, 「고려 구결본 《(合部)金光明經》권3에 관한 서지적 고찰」 『서지학연구』 15.

박영수, 1957, 「高麗大藏經의 研究」 『백성욱박사송수기념불교학논문집』.

서윤길, 1977, 「고려의 호국법회와 도량」 『불교학보』 14.

서윤길, 1994, 『고려밀교사상사 연구』, 불광출판사.

신형식, 2001, 「김부식」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상), 창작과비평사.

윤용혁, 2000, 「고려 대몽항쟁기의 불교의례」 『高麗 三別抄의 對蒙抗爭』, 일지사.

이우성, 1983, 「高麗中期의 民族敍事詩」 『韓國의 歷史認識』(上), 창작과 비평사.

이재창, 1982, 『불교경전개설』, 동국대출판부.

정승석편, 1989, 『佛典解說事典』, 민족사.

정승석편, 1998, 『고려대장경』 해제 1권, 고려대장경연구소.

정재영, 1998, 「合部金光明經(卷三)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구결연구』 3.

정필모, 1989, 「高麗再雕大藏目錄考」 『圖書館學』 17.

채상식, 1991, 『高麗後期佛敎史研究』, 일조각.

천혜봉, 1990, 『韓國典籍印刷史』, 범우사.

천혜봉, 2000, 「高麗 典籍의 集散에 관한 研究」 『고려시대연구』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최연주, 1998, 「高宗 24年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刻成事業」 『한국중세사연구』 5.

- 최연주, 2001,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刻成者 참여실태와 그 특성」 『韓國中世社會의諸問題』, 한국중세사학회.
- 최연주, 2004, 「『高麗大藏經』 刻成人의 참여형태와 彫成空間」 『한국중세사연구』 16.
- 최연주, 2004, 『『高麗大藏經』의 彫成과 刻成人 研究』, 동의대 박사학위논문.
- 최영호, 1996, 『江華京板《高麗大藏經》刻成事業의 研究』,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 최영호, 1997, 「瑜伽宗의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각성사업 참여」 『부산사학』 33.
- 최영호, 1997, 「海印寺 所藏本 『大方廣佛華嚴經疏』·『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의 관각성격」 『한국중세사연구』 4.
- 최영호, 2002, 「13세기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각성사업과 해인사」 『한국중세사연구』 13.

## The publication of 『HabbuKumkwanyungkyeong (合部金光明經)』 and the sculpture of the 『Goryodaejangkyeong(高麗大藏經)』

Choi Yeon joo

This research against the Kakseongin(刻成人) it participates to the publication of the 『Goryodaejangkyeong(高麗大藏經)』 it is recorded in 『HabbuKumkwangmyungkyeong(合部金光明經)』 and the 『HabbuKumkwangmyungkyeong』 it is published in 13 century middle is to try to observe.

With contents of the result scripture which the trade name tries to compare the in 『HabbuKumkwangmyungkyeong』 of 『Goryodaejangkyeong』 and the 『habbuKumkwanyungkyeong』 it is published in 13 century middle which had become position in Buddhist Sutras it sold and, it was a something else the constitution.

To the result 『Goryodaejangkyeong』 which tries to investigate the person who participates to these scripture to the other side 『HabbuKumkwanyungkyeong』 where the 'Bureyung(夫令)' participates the 'Jonshik(存植)', 'Jeungan(正安)', 'Hokeom(孝兼)' etc participated. These people were the people who participate to all the sculpture of the 『Koryodaejangkyeong』. And it was investigated with the carving specialists and the Buddhist monks. To participate to the namely 『Goryodaejangkyeong』 and it is the 『habbuKumkwanyungkyeong』 to make.

The 『Kumkwangmyungkyeong(金光明經)』 the place where it defends the nation is the Buddhism scripture which is necessary. It protects the nation and it is stabilized it removes a sovereign power and the place where the sorrow of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it is a Buddhism scripture which is necessary. The king from under of course shoes evaluation was receiving with the fact that it is valuable.

It was finely published from while war and Mongolia isolated force supplicated moves backward quickly. That it publishes 『Kumkwangmyungkyeong』 positivity it participated at the enterprise which is a national enterprise, it looked in the face an actuality and the creation development of consideration Buddhism defended the fatherland from aggression of course and the outside power and in character the good country ceremony which does to sleep it was letting.

[Key word] 『Goryodaejangkyeong(高麗大藏經)』, 『HabbuKumkwangmyungkyeong(合部金光明經)』, Kakseongin(刻成人), Choi's military regime, defended the fatherland.